

보도	2026.10.27.(화) 10:00	배포	2026.10.26.(월)
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박세혁	(02-3145-7590)
	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	책임자	본부장	천성대	(02-2003-9013)
		담당자	부 장	임병태	(02-2003-9100)

증권업계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증권사 CRO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'26.10.27.(화)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하에 종투자 CR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함
- 이번 간담회는 지난 6.24. 개최된 「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권사 CRO 간담회」 이후 업계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공유하고,
- 최근 발표한 「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」의 현장 안착 및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

증권업계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/장소 : '26.10.27.(화) 10:00~11:00,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
- ☑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 자본시장감독국장 등
 - (금융투자협회) 증권선물본부장
 - (증권업계) 종투자(10社) 리스크담당 임원(CRO)

Ⅱ 주요 당부사항

-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증권업계에 선제적인 신용융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당부함
 - 최근 「**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***」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나,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,
* (10.1.) 총 신용공여 한도 90% 제한, (10.19.) 신용융자 종목별 비중 15% 관리 등
 - 전산시스템 구축, 내부규정 반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함
- 또한, 증권업계가 지난 6.24. CRO 간담회* 이후 신용융자를 적정하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고, 관련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함
* 「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 CRO 간담회」
 - 특히, 당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적·일률적인 리스크관리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및 투자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신용융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함
- 아울러, 자율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수단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자율관리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함
 -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확대되면, 주가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져 시장 충격이 확산되고 시장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,
※ '26년 신용융자 잔고 추이 : [4월말] 35.7조 → [5월말] 38.0조 → [6월말] 37.3조 → [7월말] 32.1조 → [8월말] 33.2조 → [9월말] 33.3조 → **[10.22] 30.3조**
 - 증권업계는 각 사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관리방안을 마련·시행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참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관리 사례

- 국내주식 소 종목 대상으로 종목군을 하향(A~D군→C~F군) 조정하여 신용융자 한도 축소
- 최근(10월6일) 신용융자 집중도가 높은 종목의 기본한도를 축소(3억원→2억원) 하고, 증액 연장을 제한
- RPA(Robotic Process Automation)를 활용하여 신용융자 현황 및 장중 급등락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, 한도 초과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유관부서 간 신속한 논의를 거쳐 종목등급 하향, 신용융자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
- 유동성·주가·신용융자 잔고 관련 지표를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, 일중 3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즉시 대응

※ 일중 모니터링 체계

- 장 시작 전(08:00): 전일 신용융자 전체 잔고 및 증감 상위종목 점검
- 장 중(10:00): 시장 신용융자 대비 당사 비중 증가 종목, 잔고 상위종목 점검
- 일 2회(12:00~16:00): 주가 급등락 종목의 신용융자 잔고 및 이용 고객 수 점검

< 증권업계 의견 >

-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투사 CRO들은 신용융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,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
- 자율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, 건전한 신용융자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

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협회와 함께 증권업계의 총 신용공여 한도 및 종목별 비중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- 앞으로도 증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

①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는 더 큰 위험을 내재

- 금융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,
 -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상환능력과 다른 지출(생활비, 교육비 등)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

②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, 대규모 반대매매 발생 가능

-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, 대규모 반대매매*로 인해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가능하므로

*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가 정하는 일정 수준(예: 140%) 등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이 처분될 수 있음

- 신용융자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유 주식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사전 방지할 필요

③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

-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,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할 필요
- 본인의 투자 경험, 투자 위험,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종목, 방식 및 규모 등을 결정

④ 투자자는 신용융자 약관 및 설명서를 꼭 숙지할 필요

- 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전 신용거래약관·설명서 및 미수 거래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
- 신용융자 미상환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,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 등 발생 가능